

“케이블카 사태, 관광여수 이미지 실추”

공익기부금 거부 반발 확산·소송 등 행정력 낭비
강재현 시의원 “불쌍사나운 모습 빨리 종결해야”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은 단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면서 관광여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현 의원은 지난 2일 제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상케이블카 측이 여수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수시도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운영을 시작한 해상케이블카는 주차장 미 완공 등이 문제가 됐지

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논의 끝에 임시사용이 결정됐다. 당시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 이를 정상 납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고 당시 담당공무원(7급)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기부금을 미납한 기업의 마인드도 큰 문제지만 초기 대응 미흡으로 여수의 관광이미지 실추와 치명적인 악화가 우려된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

적이고 지루하고 불쌍사나운 모습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해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은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당시 상황은 관광여수 등을 감안해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익기부금 미납금 합에 대해서는 “시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제소전 화해는 유효하다고 판정했다”며 “케이블카 운영사에서 시의 입장도 다른 입장이 제시가 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양자 간

합의,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수용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서자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여수 돌산지역 단체들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 기부 약속을 하고도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했다”며 담당공무원까지 고소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스스로 파멸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 고하원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서 “돌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며 기부금 납부를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 알루미늄 공장 9일 기공식

세풍산단 1호 외국인투자 성사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됐던 광양 알루미늄 제조 공장이 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세풍산업단지에서 광양알루미늄(주) 기공식을 갖는다. 주민동의 절차로 1년여 간 늦어졌던 광양알루미늄의 투자는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5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재개됐다. 이후 착공절차를 마무리했고, 지자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기공식을 갖게 됐다. 세풍산단에 입주하는 1호 기업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인 광양알루미늄은 8만2,627㎡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계획이다. 1단계 160명, 2단계 사업준공 때 400명을 고용하게 되며, 연 1만

3,000TEU 화물창출로 광양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광양알루미늄은 환경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의 투자 실현으로 그동안 지진 부진했던 변전소 건립과 도시가스 공급 등 세풍산단에 기반시설이 마련되고, 연관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난항을 겪었던 광양알루미늄의 투자유치가 실현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광양알루미늄 투자유치가 시급성이 돼 다른 여러 연관기업들이 유치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광양지역의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포스코 기업시민 성과 공유 ‘기업, 시민이 되다’ 주제

포스코가 지난 3일 포스코센터에서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그룹 임직원, 정부 기관장, SK 경영진, 외부 전문가 및 단체,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지난해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기업시민의 1년 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공유의 장 행사에는 6대 대표사업 실천다짐식, 패널리스트 토크, 컨퍼런스를 비롯해 기업시민 홍보관,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성과 및 벤처플랫폼 부스, 나눔물품판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난 3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기업시민헌장 선포를 통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실천해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기업을 지향하는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모범시민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구례군-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타결

구례군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협상이 한 달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 한때 군수 집무실 점거까지 치달았던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군수를 상대로 한 노동청 진정 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구례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3일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임금협상을 타결해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 애초 군에서 제시한 인상분은 총 11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8억3,000만원 정도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군별로 인상을 조정하며 환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해 예상치보다 낮게 조정됐다.

임금협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군수를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 벤처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16일까지... 최종 3개사 선정

광양시가 오는 16일까지 벤처기업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현재 센터에는 5개 기업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창업과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수요 발생으로 이번 모집은 3개 기업을 선발한다. 입주 기업은 사무공간과 함께 책상, 캐비닛 등 비품 일부와 각종 기업지원 사책을 우선 제공받고, 2년간의 사업성과 심사를 거쳐 1회 연장할 경우 최대 4년간 이용

할 수 있다. 기술상담과 자문 지원, 시제품 생산, 장비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술사업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모집 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창업 중인 기업 ▲IT, BT, CT, NT 관련분야 신소재산업, 향토산업, 신지식인 영위기업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기업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입주 예정 기업 ▲이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 지역복지사업 평가 6년 연속 ‘우수’

순천시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2,000만원을 수상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지표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복지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우수지자체는 ‘광역시도·시·군·구’ 4개 분야로 구분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는 PPT발표와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순천시는 맞춤형 생활안정비, 교복지원사업, 순천시 1:1 행복드림팀, 순천아이 꿈통장, 건강동행챌린지, 홀몸어르신 반찬 나눔 등 돌봄과 배려로 창의성을 더한 순천형 복지를 추진해 2차 대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고흥 고3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은 오는 9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45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활의 노고와 피로를 위로하고 고흥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관람하고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의 역사를 이해하고 두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구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구례군은 최근 김장김치를 담그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2019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용방면 지용관에서 구례군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공무원, 구례군 지역대 등 470여명이 참여해 총 5,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등 700세대에

전달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만들고 전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사랑의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곡성 교육장·교장단 간담회

곡성군은 최근 입면 제월섬에서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곡성교육청 허성균 교육장, 지역 유·초·중고 14개 학교 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교육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의 새로운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곡성군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숲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월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 군수는 “학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 협력체계가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